

**9절: 감사하는 생활**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혹해지는 연단  
 2) 사업을 시작하다  
 3) 이고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6) 생활 전반기 신앙으로 매진

###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일곱째 천사는 사람의 마음이 영(靈)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으며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영이요, '나'라는 의식이 혼(魂)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광명 전도관에 나오던 종열이 엄마가 어찌다가 미치게 되었는데 그 젊은 여자의 정신병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사 신앙촌 근처 광명리(지금의 광명시)에 종열이 엄마라는 젊은 아주머니가 정신이상인 생겨, 일곱째 천사는 전도관 신앙촌 청년들하고 같이 정신병을 고쳐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뺨 돌려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보는데 이슬성신의 은혜가 뽀얗게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 종열이 엄마가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려 하면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모님께서 축복하신 생수를 먹이려고 하면 "피! 피!"하고 소릴 지르며 질겁하고 먹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보고 "애야! 이 애비가 목이 타니 물 좀 떠와라." 하며 행동까지도 꼭 돌아가신 시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영이 들어오니까 음성도 시아버지 음성이 나오는데, 그 남편이 아버지 음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50화)

## 죽은 사람의 내세가 곧 산 사람의 현세

성을 듣고 짝짝 못하고 물을 떠주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꿉장난 하지며 아기 행세를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의 행세를 순식간에 바꾸어가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유심히 관찰한 일곱째 천사는 영의 흐름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 피의 쿠데타, 즉 영의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미친 사람이 이랬다저랬다 합니다.

사람 각자의 몸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조상들의 영이 들어있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의 영이 왕으로 군림하여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주체의식이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해 고민 속에 깊이 빠졌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는 '나'라는 주체의식의 영이 왕의 자리인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영에게 주체의식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속의 조상들의 무수한 영들 중에서 다음으로 강한 영이 왕의 위치에 와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위치에 앉게 된 영의 사람이 그 사람의 행세를 하다가 다시 또 바뀌어 다른 조상의 영이 앉고 하는데 이때 피의 쿠데타, 즉 영의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미친 사람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바뀐 상태에서는 밥을 세 그릇 네 그릇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보아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배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증명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씩 굶어도 이상이 없으며, 타이르고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야단을 치고 고통을 가하게 되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이 하야(下野)하여 영이 바뀌는 것을 보았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 상태까지 알아맞히며, 더구나 그 사람에게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



이긴자가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며 미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 정신이상에 대한 치유는 현대의학이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일곱째 천사는 교인들과 더불어 예배를 보고 나서 종열이 엄마에게 축복한 생수를 먹으라 하니, "어어! 피를 어떻게 먹느냐? 이 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먹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수를 보고 피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마귀가 죽는다는 것으로 즉각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은 생수에는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종열이 엄마를 눕혀놓고 입 양쪽을 쪽 눌러 입이 벌어지게 하여 그 속에 생수를 따라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먹이고 다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니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왕의 위치에 있는 다른 영이 왕의 위치를 물러날 때 영과 영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정신이상에 대한 치유는 현대의학이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100% 고쳐지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오래전부터 미친 사람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십대 때부터 미친 사람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미친 사람을 그 사람이 잘 가던 장소, 놀러 가던 장소, 또 그 사람과 가장 친했던 사람을 자주 접촉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잘 가던 장소, 공원이면 공원으로 매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밀려나간 '나'라는 의식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현재 그 밀고 들어온 그 시아버지의 영을 밀어내고 그 옛날의 혼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정신이상 병이 나아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 천사는 미친 사람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전도관에서 많은 미친 사람들을 일곱째 천사가 늘 다니면서 고치게 되니까, 미친 사람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미친 사람만 생기면 일곱째 천사를 불러서 고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미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과거사를 들려줌

정신과 의사들이 미친병을 고칠 때 주로 미친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미친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좋아했으며 누구를 좋아하고 어디서 놀기를 좋아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여 과거사를 자주 들려줌으로써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치유법은 단지 통계에 의거하여 의료계에서 행해지고 있을 뿐인지 근본적으로 정신병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는 영(靈)의 세계, 신(神)의 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정신병자가 미치게 되는 원인과 정신병자가 치유되기까지의 근본 이치를 정확히 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흔히 미치게 될 때에는 '나'라는 의식이 힘이 없고 약해져서 밀려나갔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죽은 사람의 강한 영이 밀고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에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죽은 아버지를 노릇을 하거나 죽은 조상의 노릇을 할 때 비로소 미친 사람이 되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곱째 천사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전문의조차 알지 못하는 높은 층의 정신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과거사를 들려주게 되면, 그 미친 사람이 과거사를 들음으로써 기억을 되살리려는 피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의 작용은 생각에 의해서 피가 변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피가 변한다는 것은 영이 바뀐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치로 미친 사람이 본래의 자신의 영으로 바뀔 때 제정신이 들어와 미친병이 낫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 천사는 일찍이 피가 마음이요, 피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켜 영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곧 죽은 사람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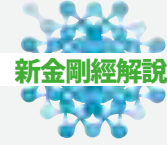
이요, 죽은 자의 마음이 죽은 자의 피다'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썩어서 죽는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즉, 피 자체가 변질되고 썩어서 죽는 것이 피가 깨끗하게 살아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조상의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다시 말해서 피라고 하는 것이 영인데, 죽은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자식 속에 있으며 자식이 없는 사람은 형제들 속이나 친척들 속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과 형제 그리고 친척들은 모두 같은 조상의 피를 나는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점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이런 식으로 족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놀랍게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조상들의 피가 몽땅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소급하여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 아담 해와의 피와 하나님의 영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조상의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인간 자신이 바로 귀신단지인지도 모르고 목전의 현실에만 급급하여 잘났다고 오스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무덤에 매장하고 해서 그 죽은 자의 영이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구름위에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영은 현재 살아있는 후손들의 핏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죽은 사람의 내세가 곧 산 사람의 현세가 되는 셈입니다.(다음호에 계속) \* 박한수



##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説) <27>

###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第十四

그런 이유로 석존이 3000여 년 전에 말씀한 유훈법을 이제는 버리고 참으로 위없는 최상승의 법문을 여시는 미륵부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시는 것이며, 미륵부처님을 만나려면 독자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과 모든 상을 버린 후 차별 없는 마음 자세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편견과 아집의 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존은 금강경의 앞장인 제5 여러실견분(如理實見分)의 사구계에 부처의 32상이 없으므로 부처가 아니라고 했고, 불교사전의 32상을 살펴보면 전문 성왕이 여러라고 쓰여 있으며 또한 금강경의 제26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에 석존은 분명히 "32상으로 여래를 본다면 전문성왕(轉輪聖王)이 곧 여래니라."라고 했듯이 전문성왕이라고 한다면 육적(肉)인 왕이 아니고 영적(靈)인 상정을 말합니다.

즉 여래는 무위의 법(無爲法)을 행하므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물질계를 변화시키며, 조종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상당한 능력이 현실로 보여지고 이해할 때까지는 조용히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님이 인간의 생각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인간들의 차별심과 다름이 없으므로 부처가 아닌 인간이요, 인간은 부처님의 능력, 즉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인 전지전능한 무위법(無爲法)을 사용할 수 없기에 미륵부처님은 당연히 이러한 상을 모두 버린 분이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와서 진리의 법을 퍼실 때에도 세상에서 포함하고 비방하고 법을 깨려고 훼방을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 맺혀 있는 모든 상을 여인 분이므로 묵묵히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사가 더 급하므로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고 계신 것이며, 석존도 아래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과 아상을 떠난 마음\_5)**  
 須菩提 須菩提  
 忍辱波羅蜜 如來說非忍辱波羅蜜  
 人肉波羅蜜 如來說非人肉波羅蜜  
 是名忍辱波羅蜜  
 是名人肉波羅蜜  
 何以故 須菩提  
 하이고 수보리  
 如我昔爲歌利王割截身體  
 我於爾時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이어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수보리아, 인육바라밀을 여러(석존)가 말씀했으니 인육바라밀이 아님에도 이를 인육바라밀이라 부른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아 내가 옛적 가리왕(歌利王)에게 몸을 베어 끊음에도, 내가 그때마다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해설] 물론 이 글은 석존이 과거 생인 전생에 있었던 일을 비유(譬喩)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석존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있기까지 이렇게 착한 선근(善根)으로 생을 살았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번뇌의 상을 끊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생각은 결국 "내가 있다"라고 하는 번뇌의 마귀(煩惱)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러한 초선의 상도 끊지 못한 사람이 "어찌 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며, 이런 마음이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마음에 있어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커지므로 세상 사람을 귀한 줄 모르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 결국 세계가 분열되고 전쟁과 분란이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즉 불도를 닦는 이들은 이런 차별의 마음의 상을 빨리 버리고 서로가 서로

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의 큰 지혜로써 미륵부처님의 8정도(八正道)를 닦아 큰 깨달음이 함께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저 열반계(涅槃界)의 화엄불국토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반계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닌 가짜의 "나(假我)"를 버린 참 "나(眞我)"를 갖춘 청정한 몸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청정한 "나"에는 번뇌에 얽매임 당하지 않는 몸과 마음이므로 세상일에 복잡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스님과 세상의 종교가들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에 나서서 앞장서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만 더 중요한 자신의 참다운 "나"를 찾는 것에는 게을리하므로 자칫하면 세상의 분열에 일조(一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할 수 있겠지요.

참다운 "나"를 찾기 위해서 우선 하여야 할 행동과 마음은 각자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열 가지의 착한 법(十善道)을 닦아 보살의 행을 할 때에 본인 스스로도 발전하고 사회적·국가적·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인육(忍辱, 크산티)이란, 대승보살의 수행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蜜) 중의



하나이다. 인육이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모욕(侮辱)과 박해(迫害), 외도(外道)의 박해자나 비방자들의 비난, 중상, 모략, 굴욕 등을 잡아내어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가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말을 할 때, 흔히 우리는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박해의 실체를 상정하기 쉽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참음"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욕됨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꺼이 받는다는 적극적인 뜻과, 모든 일에 대하여 희로애락의 동요됨이 없이 사물의 본성이 평등무이(平等無二)함을 깨달아 해탈한다는 의미로 확신된다.

사실 "인육"의 본질은 참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박해의 실체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명鍾